

인천 배다리-우각로

안양 석수시장 프로젝트

마석 이야기 ▶

동두천 프로젝트

리포트

기획자 인터뷰



녹촌분교 운동장에 모여라

썰렁하던 마석의 녹촌분교 운

동장에 왁자지껄 활기찬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한쪽에서는 이주노동자 축구팀인 '에베레스트FC'가 공을 차고, 관중석에서는 네팔 전통악기를 이용한 응원전이 펼쳐졌다. 운동장 다른 한편에서는 여자들이 수다를 떨며 뜨개질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자갈투성이었던 운동장이 포근한 운동장으로 대변신한 뒤 벌어진 일이다. 조그만 분교를 문화와 소통의 장으로 만든 <마석 이야기> 프로젝트는 그렇게 시작됐다.

글 **채은영** 독립 큐레이터



한센인들의 집단 거주지였던 마석에 영세한 가구공장들이 들어섰고,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다. <마석 이야기>의 예술감독 양철모 씨는 마석을 '묵인된 안정성이 있는 소수자의 공간'으로 정의한다.

<마석 이야기> 프로젝트를 하기 전, 내게 마석은 몇 번 갔던 천마산 스키장 앞에 있는 제법 큰 가구단지라는 것뿐이었다. 말하자면 내게는 마석에 대한 '장소성'이 없었다. 그러던 중 이주노동자와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활동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실천을 만들어가고 있는 양철모 작가가 <마석 이야기>에 참여한다는 걸 알게 되어, 2006년 9월 마석을 처음 방문했다.

마석 가구단지에 들어선 첫 느낌은 초가을임에도 불구하고 서늘하다는 것이었다. 중저가 가구 매장들이 줄지어 서 있는 굽이굽이 길. 거리에 뒤숭숭하게 쌓여 있는 폐자재. 그리고 매캐한 냄새

가 나는 공장 건물 뒤편에 오름처럼 자리잡은 학교 운동장.

마석, 이야기가 시작되다

<마석 이야기>는 문화관광부에서 설립한 공공미술추진위원회 <아트인시티 2006>의 공모 사업에 당선된 프로젝트 명이다. 공식 일정은 2006년 8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지만, 전후 과정을 포함하면 짧게 잡아도 6개월 정도가 소요됐다. 그 6개월간 <마석 이야기>는 마석 초등학교 녹촌분교를 핵심으로, 주변 동네를 포함해 진행되었다.

<마석 이야기>의 기획과 진행은 'A&C 삼거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A&C 삼거리는 10여 명의 작가들이 모여 공

A&C 삼거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녹촌분교의 운동장 가득 깔려 있던 자갈들을 걷어내는 일이었다.



공미술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협력 팀이다. 그들은 최근 공공미술에 대한 지원이 급증함에 따라 급조된 팀이 아니다. 믹스라이스를 비롯해 대부분의 작가들은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와 집회에 참여하며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었다. 공공기금이 투입되는 생소한 예술 프로젝트를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데 큰 충돌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실천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었던 셈이다.

〈마석 이야기〉의 총기획자인 양철모 씨는 마석을 ‘묵인된 안정성이 있는 소수자의 공간’으로 정의했다. 근대화 과정에서 도시에서 쫓겨난 한센인의 집단 거주지였던 마석에 영세한 불법 가구공장이 들어서면서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다. 양철모 씨는 이주노동자

와 협력 작업을 하면서 마석을 여러 차례 방문하다가 녹촌분교에 주목하게 됐다. 한센인, 이주노동자, 학교, 가구공장 소유주 등 복합적인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마석에서 유일하게 공공 영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녹촌분교였기 때문이다. 녹촌분교의 운동장은 마석이란 공간에서 유일한 오픈 스페이스, 광장이다. 그렇지만 처음에 녹촌분교 운동장은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공간이었다. 학생들의 놀이터이고, 주민들의 행사장이며, 만남과 소통의 장이어야 하건만, 배수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자갈밭이었고, 주변 공장의 먼지와 악취가 스며들어 있어 이주노동자들의 지름길 정도로만 쓰이던 공간이었다. 〈마석 이야기〉는 비장소성을 지닌 녹촌



분교와 비주체인 이주노동자, 어린이를 중심으로, 공동체의 공공성을 찾아가는 장을 만들고자 했다.

이러한 의미를 이주노동자나 주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예술가들이 찾은 구체적인 실천 방식은 무엇이었을까. 마석을 방문하기 전, 나는 예술 작업이 학교 구석구석에 있을 것이라 상상했지만, 이미 몇 달에 걸쳐 프로젝트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첫 방문 때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단지 건축업자들과 협의한 배수로 공사 얘기를 주로

자갈을 걷어낸 운동장에는 배수로로 설치하고 마사토를 깔았다. 배수로 옆에 설치한 벤치 아래에는 미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도자기 부속을 붙여 벽화를 만들었다.

들을 수 있을 뿐이었다. 무식이 과해 용기로 변했을 때, 나는 말했다. “공공미술이 아니라 토목 공사네요.”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진행방식과 결과는 11월 마을잔치에서 드러났다. 물론 2개월여 만에 다시 찾은 녹촌분교에서 비주얼 오브제의 공공미술을 찾기 위해선 꽤나 집중해서 이곳저곳을 살펴 봐야 했다.

운동장이 살아났다

운동장 관련 활동들은 마석 공동체들의 공공적 오픈 스페이스로의 회복을 위해 만들어가는 과정과 기반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프로젝트 전체 활동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을 들인 것도 운동장의 자갈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수로 공사였다. 배수로 공사로 운동장이 훨씬 다듬어졌고, 거기에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주민들, 작가, 학생, 교사 등이 함께 마사토를 깔았다.

배수로 형태를 이용해서 벤치를 만들고, 미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벤치 아래에 벽화를 꾸몄다. 운동장에 거슬리지 않는, 낮고 편안한 모습이었다. 인근 공장의 먼지와 냄새 때문에 버려졌던 운동장 옆의 등나무 덩어리에는 요술바닥과 소리 나는 도미솔 벤치를 만들었다. 마치 가우디의 건축물 장식 같은 알록달록한 타일로 마석 지



(위) 버려진 가구를 활용해 농구대를 만들었다. 3단 농구대를 만들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키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아래) 이주노동자로 구성된 축구팀 '에베레스트FC' 선수들의 사진을 오려 만든 '미니미'들.

역과 프로젝트의 상징 이미지 등을 요술바닥에 장식했다. 인근 공장의 사장은 방진막을 설치해주었다. 확실히 비릿하던 화학약품 냄새가 사라진 듯했다. 처음 이곳을 방문했을 때 쉼터에서 김밥을 먹다가 갑자기 공장에서 약품 냄새가 가득한 먼지가 쏟아져 나와 다들 서둘러 먹을거리를 챙겨서 뛰었던 기억이 새로웠다. 운동장 한쪽 구석에는 버려진 가구와 폐자재를 이용해 3가지 높이를 가진 농구대를 만들었는데, 아기자기한 상상력이 기발했다. 뒤편 수돗가에는 이주 여성들의 문화예술 워크숍인

〈손바닥〉에서 제작한 뜨개질 조형물과 천막 장식이 있었다. 학교 현판도 새롭게 단장했다. 기존 공공미술의 범주에서 탈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시각적 오브제들이 늦가을 노란 은행잎과 파란 하늘 그리고 나지막한 녹촌분교의 건물과 과하지 않게 오롯이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었다.

축구, 뜨개질, 미술

〈마석 이야기〉는 오브제 작업에서 그치지 않았다. 녹촌분교 운동장이 열린 광장으로 쓰일 수 있도록, 축구, 어린이 미술교육, 뜨개질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이주노동자로 구성된 축구팀 '에베레스트FC'는 2006년 7월부터 11월까지 에르메스FC, 수동교회 조기축구팀, 작가회의팀, 명지대학교 문예창작과팀, 건축공간연구소 이승택 씨의 고등학교 동문팀과 경기를 했다. 이는 단순한 운동 경기를 넘어, 공통의 관심을 통해 공동의 기억을 공유하는 과정이었다.

8월부터 4개월간 진행된 어린이 미술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도자기 부속물을 만들었고, 이를 이용하여 운동장 배수로를 보수하면서 생긴 벤치를 꾸몄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여성 이주노동자들을 위해서는 '뜨개질'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수다와 대화를 통해 공동의 기억을 소통하려 했다. 마을잔치에서는 이제



어린이 미술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 <잘잘잘> 퍼포먼스 놀이를 하면서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만든 후, 박스 앞뒤로 쓰인 글자가 문장으로 이어지도록 줄을 서서 노래를 부르며 운동장을 돌았다.

껏 진행해왔던 프로그램 외에 이동 사진관, 녹촌분교 현판식, 어린이들의 미술작품 전시회, 풍물놀이 시연회, 축구 경기 등과 함께 꾸집한 먹을거리로 오랜만에 운동장을 마스한 기운으로 가득 메웠다.

공공예술의 고민과 어려움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작가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쉼터에 소리 나는 도미술 벤치를 만든 작가 김목인 씨는 대개의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미술 장르 작가들의 협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건축 등 그 외 장르의 예술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목인 씨는 인디 밴드 ‘캐비넷

싱얼롱즈’의 보컬이기도 한데, 음악 활동만 하다가 오브제를 만들려다보니 시행착오가 많았다고 한다. 특히 참여를 통해 오브제를 만들어낸다는 기획 취지의 장점보다는, 고장이나 파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탓에 만들어낸 오브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 아쉽다고 했다.

여성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워크숍 <손바닥>을 진행했던 도현주 씨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낮에는 노동을 하고 퇴근 후에는 육아와 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오랫동안 이주노동자와의 미디어 워크숍을 진행해온, 믹스라이스 멤버이기도



이주노동자들은 <마석 이야기>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활동했다. 축구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이들이 한쪽에서 네팔 전통악기로 응원을 하고 있다.

한 조지은 씨는 작가들 간의 공유와 이해에 대한 조정과 합의가 어려웠으며,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맥락과 상황이 점차 변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향후 활동과 방향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그들을 비롯한 많은 작가들과 진행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획비를 받으며 무언가 알 수 없는 불타는 책임감으로 6개월여를 버텨왔는지도 모르겠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기획자나 작가들 사이에서는, 노력과 고민에 대한 최소한의 피드백이 없는 봉사활동의 구조로는 공공미술이 지닌 의미와 진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목적과 내용이 비영리성을 갖기 때문에, 공공기금의 지원 없이 진행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 물론 관련 지역의 주민, 단체, 기업 등의 후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전에 프로젝트의 목적과 개념에 대한 작가와 주민 양자의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공공예술을 하는 작가들과 대중 사이의 기대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한정된 예산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기획자는 작가들의 의견과 참여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정해야 하고, 작가는 작가대로 제도권 예술과의 긴장 관계 등과 싸워야 한다. 이것은 예술의 맥락과 전략을 확장시키고 좀더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재정립하는 공공예술의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양철모 씨는 공공기금 지원의 한계로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한
‘사진 강좌 프로그램’
활동. 한 참가자가 자신이
찍은 사진으로 만든
배지를 들어 보였다.



인해 1년간의 활동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게 됐을 때도 예술가들이 치고 빠진다는 식으로 인식될까 걱정스러웠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 주민과 이주노동자들이 그동안 공유한 기억을 좀더 발전시켜 스스로 문제들을 해결해갈 수 있는 여지를 주고자 했다. 배수로 공사를 마친 운동장에 흙을 채우는 일이 바로 그것이었는데, 실제로 그동안 권위적인 면을 보인 학교 측이나 주변 공간 관련자들의 협조와 후원을 얻어내는 데까지 진행되었다. 또한 마을잔치에서 스스로 만든 영상물을 보여준 이주노동자 어숙의 사례는 재현의 대상으로서의 이주노동자가 아닌, 발화 능력을 가진 하위주체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작가는 창작자가 아니라 표현과 생산에 대해 상호 교류하는 ‘매개자’인 것이다.

그들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새로운 예술의 가능성을 실험했다.

참여자들이 공유한 ‘과정의 기억’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함께 하는 수용자의 입장에서 <마석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 이런 질문을 하기에 앞서, 무언가 그들에게 원하는 대답이 이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혹은 9시 뉴스에서 기자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감상평을 부탁할 때 “좋아요”, “재미있어요”라는 짧은 대답이 나오면 피식 웃곤했던 나로서는 원하는 대답이 나오는 것 역시도 염려된다. 수혜적 입장이나 왜곡된 대중성에 의지하지 않은 채,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한 수용자들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란 늘 쉽지 않은 것이다.



한 이주노동자의 동생이 어린이 미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만든 모형을 자랑스레 보여주었다. <마석 이야기>가 마무리된 뒤에도 이들은 그 '과정의 기억'을 공유하며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갈 것이다.

에베레스트FC와의 축구 경기에 참여했던 엄운진 씨(건축학과 대학원생)는 자신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공공미술과 다른 방식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됐고, 미래의 건축가로서 공공예술의 전략과 방향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들이 제작한 영상물을 보고 함께 축구도 했던 최근혁 씨(하자센터 학생)는 생전 처음 마석이란 곳에 와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고 생각을 나누면서 자신이 가졌던 선입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자신이 만든 모형을 자랑스럽게 보여준 산타의 동생, 잔치에서 손수 만든 네팔 음식을 권하면서 푸짐하게 담아주던 마야, '강제 추방 핫케이크'를 구워주던 조지은 작가, 얼굴이 새까맣게 되

도록 굳고구마를 굽던 고승욱 작가... 그 시간, 그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과 장터 같은 왁자지껄함으로 함께 한 것은 양철모 씨가 여러 차례 말했던 '과정의 기억'을 새삼 떠올리게 한다. 한국적 근대화의 축소판으로서 상실의 공간이었던 마석에 새로운 '장소성'이 자라고 있는 것이다.

<마석 이야기>는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아트인시티> 지속사업 분야에 선정되었다. 이는 일회적인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지양하고, 기획과 진행 과정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진정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2006년에 참여했던 이주노동자 중 일부가 한국에서 강제 추방되고, A&C 삼거리 팀 내부 상황이 변함에 따라, 2007년에는 프로그

램 자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어린이 미술교육 프로그램과 축구 프로그램은 꾸준히 진행됐다. 다만 아쉬운 점은 재개발 계획에 따라 마석 지역의 공단과 학교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재개발될 장소에 공공기금을 들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말을 듣기도 한다. 이에 대해 양철모씨는 자본의 유입에 따라 아파트 재개발이 되면 마석의 흔적은 소실되겠지만, 구성원들과 작가들이 함께 한 ‘과정의 기억’은 체화되어 다른 자본의 공간에서 다시 장소성을 만들어가는 실천으로 잔존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마석 이야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한 많은 사람들은 마석의 역사성과 의미에 대해 알게 되었고, 공공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기억을 갖게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마석 이야기>를 통해 삶과 예술은 좀더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다. 상상력과 발화가능성을 지닌 주체들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일상 공간에서 벗어나 보편적 권리 행사가 가능한 장소를 만들어갈 수 있다. 참여했던 작가들도 각자의 기억을 가지고 또다른 공간에서 예술과 삶의 소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것이고, 실제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기획, 진행하고 있는 작가도 있다.

<마석 이야기> 프로젝트가 끝난 후 내게 마석은 의미 있는 장소로 기억되었고, 이제는 일상의 순간순간 재구성되어 관계 맺기를 한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서울 둔촌동에 3년 동안 살아왔지만,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뿐만 아니라, 서울 생활 12년여 동안 서울은 그저 거주지였고 일터였을 뿐이다. 이제부터라도 ‘인간답게’ 살아봐야겠다는 뜬금없는 생각을 해본다.

인간답다는 것은 의미 있는 장소로 가득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다.

인간답다라는 말은 자신의 장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장소를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글쓴이 **채은영** 경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를 졸업하고 ‘대안공간 풀’ 큐레이터와 대안공간 네트워크 사무국장으로 일하다가 현재는 독립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도시 공간에서 제도와 자본에 대한 문화예술의 사회적 실천에 관심이 많다.